

시설 정보

聖徳太子御廟 쇼토쿠 태자 사당 	스이코 천황의 섭정으로서 17조 헌법과 관위 12계의 제정, 견수사 파견 등 발전된 정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여 정치 개혁을 도모한 쇼토쿠 태자는 니혼쇼키에 의하면 621년에 사망하여 시나가 지역에 묻혔습니다. 쇼토쿠 태자 사당은 직경 약 50m, 높이 약 10m 정도 되는 원형 고분으로, 내부는 정교하게 자른 돌을 사용한 횡혈식 석실입니다. 태자와 어머니인 아나호베노하시히토 황후, 황비인 가시와데노이라쓰메 등 세 사람의 관이 모셔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삼골일묘로 불리고 있습니다.
--	---

敏達天皇陵 비다쓰 천황릉 	제30대 비다쓰 천황은 572년에 즉위하였고, 사후에 어머니인 이시히메 황후의 무덤인 시나가의 능에 묻혔다고 「니혼쇼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다쓰 천황릉은 전장 약 93m의 시나가 계곡에서는 유일한 전방후원분으로, 주위는 빈 해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횡혈식 석실이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주변에서 토용들이 발굴되고 있고, 이들을 통해 고분시대 후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

孝徳天皇陵 고토쿠 천황릉 	다이카 개신 후에 즉위한 제36대 고토쿠 천황은 개신에 공적을 올린 소가노구라야마다노이시카와마로 등을 정권에 등용해서 개신 정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나카노오에 황자 등과 사이가 나빠진 천황은 나니와궁에서 654년에 쓸쓸하게 숨을 거두고 오사카노시나가 능에 묻혔습니다. 다케노우치 가도 길가에 위치한 이 능은 '빠꾸기의 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직경 약 30m의 조그만 원형 고분입니다. 옛날에 배총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가이주부도교라는 거울이 유명합니다.
--	--

叡福寺 에이후쿠지 	쇼토쿠 태자 사당을 수호하기 위해 스이코 천황에 의해 승방이 건립된 것이 시작이며, 나라시대에 쇼무 천황이 대가람을 정비한 것으로 전해지는 에이후쿠지 절은 쇼토쿠 태자 신앙의 영지로서 발전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전쟁으로 한때는 온 산이 소실되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성령전 재건으로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가람이 재건되었습니다. 태자의 위덕을 기리며 매년 4월 11일에 진행되는 대승 법회는 많은 참배객들로 붐빍니다.
---	--

二子塚古墳 후타고즈카 고분 	스이코 천황릉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후타고즈카 고분은 사각형 고분 2개를 이어놓은 쌍방분이라는 보기 드문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의 분구에 각각 거의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의 횡혈식 석실이 있고, 석실에 사용된 석재의 틈새와 표면에는 회반죽이 충전 도포되어 있습니다. 또 밧줄을 걸기 위한 덮개의 돌기가 퇴화한 어묵형의 집 모양 석관이 각각의 석실에 모셔져 있습니다. 고분의 종말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분입니다.
--	---

大道旧山本家住宅 다이도 구 야마모토가 주택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관도로 알려진 다케노우치 가도의 길가에 자리한 고민가로, 이영을 얻은 맞배지붕의 양쪽 끝에 기와를 얹은 야마토무네의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야마토와 사카이를 연결하는 가도 길가의 역사적 공간을 특징짓는 것으로서 '국가 등록 유형 문화재(건조물)'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정표와 이세 등롱 등이 남아 있어 옛날에 경제활동이나 순례를 위해 사람들이 오가던 당시의 모습을 오늘에 전하고 있습니다.
---	--

用明天皇陵 요메이 천황릉 	「니혼쇼키」에 의하면, 제31 대 요메이 천황은 이와레노이케가미 능에 묻혔다가, 그 후 593년에 '고치노시나가 능'으로 옮겨 묻힌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메이 천황릉은 동서 약 65m, 남북 약 60m, 높이 약 10m의 사각형 고분으로, 주위는 폭 약 7m의 빈 해자로 둘러싸여 있고, 이 해자의 바깥 제방까지 포함한 규모는 한 변이 약 100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분구 규모나 형태는 소가노우마코의 무덤으로 알려진 이시부타이 고분과 흡사합니다.
--	---

推古天皇陵 스이코 천황릉 	일본 최초의 여제인 제33대 스이코 천황은 쇼토쿠 태자를 섭정하며 대륙 수나라와의 교섭을 통해 선진적인 정치 제도와 문화, 예술 등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정치를 개혁하고 불교 문화를 중심으로 한 아스카 문화를 꽃피우게 했습니다. 스이코 천황릉은 동서로 긴 삼단 축성의 장방형 고분으로, 내부에는 2개의 횡혈식 석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이시초에는 이와 같이 하나의 분구에 2개의 석실이 있는 고분으로서, 서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하무로즈카 고분과 남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후타고즈카 고분이 유명합니다.
--	---

竹内街道 다케노우치 가도 	대륙 외교의 관문이었던 아스카교를 연결하는 '오미치' 길은 613년 스이코 천황에 의해 정비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관도입니다. 그 중 사카이시부터 가쓰라기시에 이르는 약 30km의 길을 다케노우치 가도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견수사나 견당사가 오가던 외교의 길, 중세에는 가시하라시의 이마이초와 사카이시를 연결해서 발전에 이바지한 경제의 길, 근세에는 신궁 참배에 관련된 신앙의 길로서 이용되어 그 역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2017년에는 일본유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

西方院 사이호인 	쇼토쿠 태자가 사망한 후 그의 유모였던 쓰키마스, 히키마스, 다마테루(각각 소가노우마코, 오노노이모코, 모노노베노모리야의 딸로 알려짐) 세 사람이 삭발을 하고 불교에 입문했고, 태자의 무덤 앞에 사당을 건립해서 태자의 명복을 빈 것이 이 절의 시초로 전해집니다. 절 남쪽의 묘지 내에는 이 세 귀부인 출신 여승의 사당으로 전해지는 3개의 돌탑이 남아 있습니다. 본존은 쇼토쿠 태자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아미타여래상과 에신 승도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십일면관음보살상입니다.
---	--

小野妹子廟(墓) 오노노이모코 사당(묘) 	시나가 신사 남쪽의 나지막한 언덕 위에 옛날부터 오노노이모코의 것으로 전해지는 조그만 무덤이 있습니다. 이모코는 스이코 천황 시대에 견수사로서 당시 중국 대륙에 있던 수나라에 파견된 인물입니다. 이모코가 쇼토쿠 태자의 수호 본존인 여의륜관음의 수호를 맡은 후, 집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에게 꽃을 바친 것이 꽃꽃이의 원조인 이케노보의 시초가 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현재 무덤은 이케노보 가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	---

二上山 니조산 	낙타 등처럼 생긴 두 개의 정상을 가진 산으로, '만요슈'에는 '후타카미야마'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등 옛날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산기슭에서는 석기의 재료가 된 새너카이트와 석관이나 초석에 사용된 응회암이 채취되어 고고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오다케 산정에는 덴무 천황의 아들인 오쓰 황자가 묻혀 있습니다.
--	--